

41 부활

Chapter

고전 15장

찬송가 158장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 날), 찬양 172장 (주의 이름 높이며)

오늘 배울



말씀

1.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실제로 있음을 확신합니다.
2. 이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 고통을 부활의 소망을 가짐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압니다.

마음 열기



〈꽃들에게 희망을〉중 노란 애벌레와 고치의 대화

애벌레 :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고치 :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애벌레로 사는 것을 기꺼이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애벌레 : 죽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고치 :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겉모습’은 죽은 듯이 보여도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 있단다. 삶의 모습은 바뀌지만 목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야. 나비가 되어 보지도 못하고 죽는 애벌레들과는 다르단다.



말씀을 이해하기

공과말씀정리

‘내가 부활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 우리는 가끔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지만 언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관찰해보면 어렴풋이나마 부활을 상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의 일들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의 일들을 알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결과를 설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후에 각각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과, 사람과 짐승, 물고기와 새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육체를 주신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몸의 부활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신령한 몸을 주실 수 있음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형체는 우리가 무엇으로 심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애벌레가 고치를 틀고 나면 예쁜 나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의인이 부활할 때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기대합니다. 반면에 에덴동산에서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현재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믿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썩어질 몸을 순식간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보다 먼저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염려와 유혹을 떨쳐버리고 현재를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롬 8:24~25)

For we were saved in this hope, but hope that is seen is not hope; for why does one still hope for what he sees?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see, we eagerly wait for it with perseverance (Ro 8:24~25)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요 5:28~29)

(계 20:4~6, 12~15)

(요일 3:2~3)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육신의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은 후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1절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가죽 텐트)’은 무엇이며, 장막 집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됩니까?
2. 그렇다면 1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 ‘장막 집’ 즉 ‘텐트’와 ‘영원한 집’을 대조해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각 집의 어떠한 특성을 강조하려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일까요?
4. 2절에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씀 하십니다. 내가 탄식하는 때는 주로 어떤 경우이고 무슨 일 때문입니까?
5. 5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활의 소망에 대한 보증이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런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읽고 정리해 보세요.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앞서간 믿음의 일군들과 동일하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어떠한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범사에 담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하나님이 보실 때

온갖 나쁜 짓을 일삼던 형제, 게리와 조



어느 날 형 게리가 죽자 동생 조는 목사를 찾아가 장례식을 부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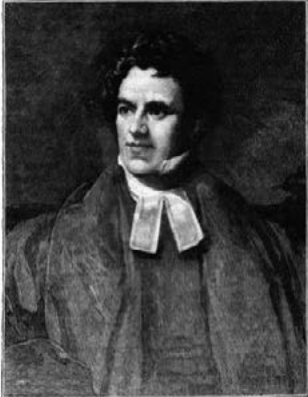
드디어 장례식 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게리와 조 형제 같을 것입니다.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 3:10~12)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토마스 아놀드의 증언



옥스포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 (Thomas Anold)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며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

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예수의 부활을 허위로 선전했다면 기독교가 2천년이 지난 오늘까지 존재할 수 없고 점차 발전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 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진실성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